



百濟와 新羅의 國家的 美術交流

The National Arts Exchange of Baekje and Silla

저자 (Authors)	陳政煥 Jin, Joung-hwan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42), 2018.4, 149-192 (44 pages) SILLASAHAKPO , (42), 2018.4, 149-192 (44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0215
APA Style	陳政煥 (2018). 百濟와 新羅의 國家的 美術交流. 신라사학보, (42), 149-1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百濟와 新羅의 國家的 美術交流

陳政煥*

I. 머리말	IV. 後三國期 後百濟 美術의 對新羅
II. 百濟와 新羅 交流記錄 檢討	影響
III. 百濟와 新羅의 美術交流 樣相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고분 출토품, 제와술과 목조건축술 등 기술, 불교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유물을 통해 양국 간의 미술 및 문화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교류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미술교류에 대해 양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遠近에 따라, 첫째 ‘적극 동맹기’, 둘째 ‘동맹 소강기’, 셋째 ‘대치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 번째, ‘적극 동맹기’는 450년~500년으로 고구려의 남하에 백제와 신라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한 시기이다. 이 시기 양국 간 미술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당

*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주요 논저 :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報》 32, 2014 ;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背景> 《美術史學研究》 287, 2015 ;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 《불교미술사학》 23, 2017 외 다수

시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나온 은제과판이다. 식리총 금동신발은 한성시기에서 웅진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송산리 고분의 과판 역시 신라의 전형적인 과판이다. 이 시기의 교류는 비록 적극 동맹기였으나, 이처럼 완제품이 상대 국가에 사여되는 것 이외에 문화교류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동맹 소강기’는 500년 이후부터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554년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 양국은 명목 상 동맹이었으나,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양-백제-신라 3국의 국제 관계 속에서 백제의 제와술과 같은 기술이 신라에 전해지는 한편 중국 남조 불상양식의 영향을 공유하는 등 동맹이 굳건했던 그 전시기에 비해 오히려 미술교류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치 시기’에는 ‘동맹 소강기’ 그 이전 시기 있었던 국가 차원의 직접적 교류는 점차 쇠퇴됨에 따라, 목조건축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방의 문화 내지 미술이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다른 국가의 문화와 미술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자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후삼국기 후백제는 전반적으로 신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으나,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남산 늪비봉 석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후백제에서도 후백제 미술을 신라 지역에 이식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에 세련된 백제 미술이 신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데, 본고를 통해 국가 차원의 미술교류는 직접적인 영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백제의 미술이 신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백제와 신라의 미술교류는 당시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백제, 신라, 미술교류, 금동신발, 제와술, 불상

I. 머리말

백제와 신라지역 간 문물교류는 마한과 진한시기부터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인접한 지역 간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성시기 유적으로 여겨지는 鎭川 石帳里 製鐵遺蹟과 大田 九城洞 木槨墓에서 경주의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으며,¹⁾ 웅진시기에는 백제의 지방과 신라의 지방 간 직·간접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는 반면, 사비시기에는 신라와 백제의 영역에서 상대 국가 문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²⁾ 이러한 견해는 과연 백제와 신라, 양국 간 국가 차원의 교류, 엄밀히 말하면 왕실 주도의 문화교류의 양상과도 부합하는 것일까? 예컨대, 한성시기 국가의 전략자산이라 할 수 있는 제철소(진천 석장리 제철유적)에서 대규모로 신라 토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국가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불과 1점이라는 점에서 꼭 그렇게 보아야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통제된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니었던 이상 상대국가의 문화요소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무수히 확인되는 백제와 신라의 문화·미술교류가 국가 혹은 왕실을 완전히 배제한 문화접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백제 혹은 신라의 완제품이 상대국에서 출토되었거나 거의 동

1) 이영훈 외,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國立淸州博物館·浦項産業科學研究院, 2004; 崔秉鉉·柳基正, 《大田九城洞遺蹟》, 韓南大學校博物館·氣象廳, 1997.

2) 홍보식, <신라·가야권역 내의 마한·백제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 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영남고고학회, 2007; 홍보식, 《백제의 문물 교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70~124쪽.

일한 불상이 양 국가에서 동시에 출현하거나, 기술이 일방적으로 전래되는 것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내지 왕실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 관념적으로 삼국시대 백제 미술은 세련되고 정치한 반면, 신라 미술은 경직되어 있고 둔중하고 고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³⁾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국가 차원에서 백제의 미술이 신라지역에 일방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III장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백제의 금속공예품, 불상 등 개개의 미술품은 물론이고 제와술과 목조건축술 같은 제작기술이 신라에 전해진 것을 일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신라의 미술에서 백제 미술이 일방적이고 폭넓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양국의 미술교류가 문화접변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련된 백제의 미술이 신라에 상당 수준 영향을 끼쳤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양국의 미술교류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통제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문화교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의 국가 차원 달리 말하면 백제와 신라 왕실 차원의 미술교류가 어떤 양상을 띠며, 이러한 교류가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통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백제-신라의 정치·외교적 상황과 미술교류와의 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II장에서는 양국 교류기록을 통해 우리의 양국 교류에 대한 통념들이 맞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미술교류의 사례를 들어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IV장에서는 200여 년의 통일신라시대를 거친 이후에도 백제지역의 문화가 신라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

3) 강우방, <삼국시대불교조각론> 《삼국시대 불교조각》, 국립중앙박물관, 1990, 153~154쪽.

기 위해 신라지역에서 확인되는 후백제의 미술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보겠다.

II. 百濟와 新羅 交流記錄 檢討

《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와 신라의 첫 번째 조우는 백제 多婁王 36년(63년) 백제가娘子谷城(청주)까지 영토를 넓히면서인데, 이때 백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회견을 요청하지만 신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⁴⁾ 이후 백제는 낭자곡성, 拘壤城 등 현재의 충북일대에서 신라와 잦은 교전을 벌였다.⁵⁾

하지만 백제 己婁王 29년(105년) 이후에는 양국 간 사신을 파견하거나 신라가 말갈의 침입을 받아 백제에서 장군을 보내는 등 우호관계를 맺게 된다.⁶⁾ 그러나 이러한 우호관계는 신라 逸聖王(134~154년) 때 신라가 말갈의 계속되는 침입을 받았음에도 백제에서 구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⁷⁾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⁸⁾ 이 시기 우호관계 단절의 결과는 백제 肖古王(166~214년) 때부터 古爾王(234~286년) 때까지 양국의 공방으로 귀결된다.⁹⁾

그러다가 고이왕 53년(286년) 백제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한다.¹⁰⁾ 고이왕의 화친 요청 이후 양국은 백제가 신라에 사신

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多婁王 36年.

5) 김병남, <백제 초기의 대외 팽창과 대신라 전쟁의 이해> 《전북사학》 34, 2009, 5~38쪽.

6)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己婁王 29年·37年;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2年.

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4年·6年.

8) 정운용, 《百濟의 對外交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93쪽.

9) 정운용, 앞의 책, 2007, 94쪽.

을 파견하여 ‘좋은 말 2필’을 보낸 368년까지 거의 90년간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였다.¹¹⁾ 이 시기 백제는 近肖古王이 고구려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교류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백제로서는 신라와의 관계 안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초고왕 28년(373년) 禿山城主가 백성 300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¹²⁾ 그러한 상황에서 399년~400년 倭가 신라를 침공하자 신라는 고구려 廣開土王의 원조로 극복한 뒤 고구려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었다.¹³⁾

고구려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자 했던 백제와 고구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신라는 고구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소위 ‘濟羅同盟’을 맺게 된다.¹⁴⁾ 양국의 對高句麗 공동전선은 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을 때 신라 訥祗王이 병력을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475년 고구려군에 의한 백제 수도 한성의 함락과 웅진 천도 이후 더욱 공고해졌으며, 481년에는 신라 인근 彌秩夫(홍해)까지 침공한 고구려군을 백제·신라·가야가 공동 대응하여 물리친다.¹⁵⁾ 485년에는 백제가 먼저 신라에 사신을 보내고, 493년 東城王이 신라에 청혼하여 伊伐飡 比智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한다.¹⁶⁾ 이는 486

1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古爾王 53年.

1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34年; 近肖古王 21年;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13年.

12)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28年;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18年.

13)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94, 43~45쪽.

14)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43~45쪽; 姜鍾薰, <羅濟同盟의 結成 背景과 高句麗의 對外關係> 《大丘史學》 105, 2011, 1~38쪽.

1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8年;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文周王 卽位年;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

년 고구려가 신라의 狐山城을 함락시킬 때 모종의 이유로 백제가 신라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양국 간 동맹에 틈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동성왕이 신라에 혼인을 청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한편, 500년 이후 백제와 고구려간 전쟁이 빈번하였으나, 신라의 군사 활동은 548년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¹⁸⁾ 그럼에도 《梁書》 新羅傳에 따르면, 521년 梁과 신라가 통교할 때 백제 사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양국 간 문화교류는 어느 정도는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년 이후 계속된 백제-신라 양국 간 정치적 냉각기를 먼저 타개할 필요가 있던 국가는 백제였다. 聖王은 538년 泗泚 천도를 단행하였는데, 천도 이후 국가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신라와의 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했다.¹⁹⁾ 이를 위해 541년 백제가 먼저 신라에 사신을 요청하게 된다.²⁰⁾

이렇게 455년 이후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100여 년간 이어져 온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양국이 힘을 합쳐 551년 한강유역에서 고구려세력을 물리친 후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552년 신라가 백제가 주둔하던 한성을 장악하고 553년에는 백제 동북 변경을 차지하여 新州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²¹⁾ 게다가 고구려의 압박까지 겹친 백제는 제라동

1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7年;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5年;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于 15年.

17)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 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5, 2001, 74~80쪽.

18) 鄭載潤, 앞의 논문, 2001, 80~84쪽.

19) 김수태, <백제의 천도>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12, 38~49쪽.

2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年.

21)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日本書紀》 卷19, 欽明 12年·13年·14年;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

맹의 복원을 위해 백제의 왕녀를 신라 진흥왕과 혼인케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²²⁾ 그러나 554년 管山城戰鬪에서 성왕이 전사한 이후 양국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²³⁾

돌이킬 수 없게 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6세기 중엽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까지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백제의 武王과 義慈王이 통치하던 600년 이후가 되면서 양국은 승패를 주고받는 일진일퇴의 격돌을 벌였다.²⁴⁾

그런데 《三國遺事》를 살펴보면, 泗泚時期 양국 간 정치적 경색기에도 불구하고 백제 미륵사 창건에 신라 진평왕이 여러 공인을 보내는가 하면, 황룡사 구층목탑 조성에 신라에서 백제에 공장 아버지를 청하는 등 백제와 신라는 정치와 무관하게 문화교류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대체로 판단하고 있다.²⁵⁾ 과연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와 신라의 교류기록을 통해 우선 고구려의 남진과 554년 관산성 전투를 분기점으로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백제 수도의 남천과 연관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2기 즉 백제의 웅진시기이자 제라동맹기에는 양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교류가 균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양국 간

2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31年.

23) 張彰恩,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鬪> 《진단학보》 111, 2011, 1~43쪽;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5~31쪽.

24) 金壽泰, <百濟 義慈王代의 政治變動>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57~76쪽; 박민경, <武王·義慈王代 政局運營의 研究>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569~596쪽;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2010, 61~92쪽.

25) 《三國遺事》 卷2, 紀異2, 武王; 《三國遺事》 卷3, 塔像2, 皇龍寺九層塔;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紀》

적극적인 교류가 없던 1기는 제외하고, 2기와 3기를 다시 ‘적극 동맹기’, ‘동맹 소강기’, ‘대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물론 ‘적극 동맹기’와 ‘동맹 소강기’를 나누는 시점을 교류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구려의 백제 침공에 대한 신라의 태도가 달라진 500년을 기점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적극 동맹기’는 450년~500년으로 고구려의 남하에 백제와 신라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한 시기이고, ‘동맹 소강기’는 500년 이후부터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554년 이전까지로 명목 상 동맹이었으나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에 소극적이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치 시기’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이 전사한 사건 이후로 양국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던 시기라 하겠다.

Ⅲ. 百濟와 新羅의 美術交流 樣相

1. 金屬工藝品の 賜與

고고학적 발굴 결과, 백제지역과 신라지역의 문물 교류는 백제 건국 이전인 삼한시대부터 전 시기에 걸쳐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백제와 신라 미술 교류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있었던 양국의 최고수장급 무덤에 埋納된 상대국 제작 금속공예품이다. 그 중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백제지역인 高敞 鳳德里 1호분 4호 석실과 신라지역인 경주 飾履塚에서 출토된 金銅飾履이다.

백제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原州 法泉里, 公州 水村里, 瑞山 副長里, 公州 武寧王陵 및 宋山里, 益山 笠店里, 羅州 新村里와 伏巖里, 高興 吉頭里 雁洞古墳 등에서 발견되었다. 원주 법천리 1·4호분, 공주 수촌리 Ⅱ-1호,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금동신발 등 초기 백제 신발들은 ‘凸’자문을 맞새김 하였는데, 이러한 문양의 금동신발은 신라지역의 皇南大塚 南墳, 金冠塚, 天馬塚 등 5세기~6세기 전반의 고분에서도 확인된다.²⁶⁾ 이후 彫金技法으로 鋸齒文·火焰文·龍文 등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다가 菱形文과 花文 등으로 단순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⁷⁾ 전자의 예로 공주 수촌리 Ⅱ-3호와 4호,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출토 금동신발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는 익산 입점리 88-1호, 나주 신촌리 9호, 무령왕릉 출토의 것이 있다.

‘凸’자 맞새김 무늬는 고구려 太王陵 출토 금속공예품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백제는 물론 신라에서도 늦은 시기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이 공유하였던 문양 요소로 생각된다. 이와 다른 문양을 보이는 식리총 금동신발은 백제 금동신발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백제 금동신발 제작기법과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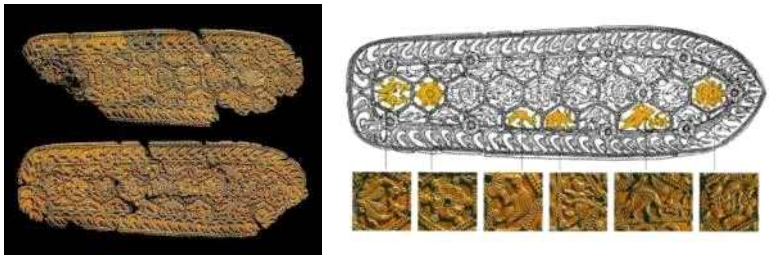
	한 성 시 기				
출토유구	길두리 안동	수촌리Ⅱ-1	수촌리Ⅱ-3	수촌리Ⅱ-4	봉덕리
관금기법	투조	투조	투조	투조	투조
조금기술			점선조+축조	점선조+축조	축조+어자정
측판문양	凸자문	凸자문	凸자문, 염문 등	거치문, 용문	인면조신 등
바닥문양	능형문	능형문	용문, 연화문 등	용문	화염문, 용문 등
사 진					

26) 홍보식, 《백제의 문물교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00쪽.

27) 이문형,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8, 2015, 71~78쪽.

	용진시기		
출토유구	입점리	신촌리	무령왕릉
관금기법	평판	평판	투조+평판
조금기술	접선조	접선조	접선조
측판문양	능형문, 화문	능형문, 원점문	화문
바닥문양	능형문, 화문	능형문, 화문	화문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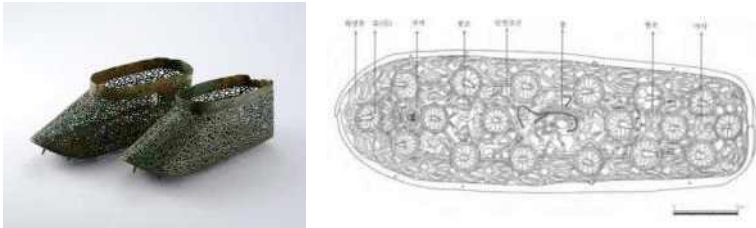
1924년에 발굴된 식리총 금동신발(圖 1)은 바닥판과 좌·우측판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한 것이다. 바닥판 문양을 살펴보면, 외연에 2줄의 連珠文을 두르고 그 안쪽에 화염문을 새겼고, 연이어 총 9개의 8엽 蓮華文이 배치된 內線이 있다. 내선 내부 중앙에 2줄의 연주문으로 龜甲文(육각형 무늬)을 새겼고 그 안에는 怪獸文, 雙鳥文, 연화문 등을 조각하였으며, 그 좌우에도 귀갑문 내에 쌍조문, 人面鳥身文, 瑞獸文, 鳥文 등을 새겼다.



〈圖 1〉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식리총 금동신발은 양 측판과 바닥판을 조립한 후 발등과 뒤축에서만 못으로 결합한 것이나 화문 중앙에 스파이크상 금속 못을 결합시킨 것 등 공주 수촌리 II-3호 출토 금동신발과 동일한 제작방식을 보

이고 있어, 백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²⁸⁾ 이러한 주장과 달리 괴수문과 인면조신문 등을 각각 師子와 迦陵頻伽 등의 불교도상으로 이해하여 식리총 금동신발을 신라 불교 공인과 관련하여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⁹⁾



〈圖 2〉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그러나 식리총 금동신발의 문양과 2009년 12월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圖 2)의 문양을 비교해보면, 식리총 금동신발이 백제에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봉덕리 금동신발 바닥판 문양을 살펴보면 외연에 화염문을 배치하고, 내선에는 스파이크상 금속 못이 박힌 14개의 연화문이 있으며, 내선 내부에도 4개의 연화문이 있다. 또한 내선 내부 화문과 맞대어 귀갑

28) 이한상,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2010, 69~70쪽.

29) 朴光烈, <新羅 積石木槨墓 出土 黃金遺物과 初傳佛敎－黃金의 起源과 移入에 대하여－> 《文化史學》 27, 2007, 215~216쪽.

식리총 금동신발의 문양이 화염문·연화문 등 불교적 요소와 용·인면조신 등 전통적인 서수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현실구복적인 불교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李松蘭, <신라 고분 공예품에 보이는 불교적 요소의 계보와 그 의미> 《東岳美術史學》 5, 2004, 34~38쪽).

문이 새겨져 있으며, 귀갑문 내부에는 조문, 괴수문, 쌍조문, 龍文, 力士文, 인면조신문 등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두 금동신발이 동일한 관념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두 금동신발은 제작기법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바닥판과 측판을 못으로 결합하였다는 것은 두 신발이 같지만 봉덕리 금동신발은 발등 면과 뒤축만 결합한 식리총 신발과 달리 측면에서도 못으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목 것에 금동판을 추가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문양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봉덕리 출토 신발의 연화문은 8엽인 식리총 신발과 달리 6엽이며, 식리총 신발에서 볼 수 없는 역사문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새의 깃털 등 세부 표현이 식리총 신발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작시기 또는 제작자가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봉덕리와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한 문양 패턴이 백제는 물론 신라에서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작의 시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작자 내지 제작 집단의 차이로 볼 여지가 더 많다.

한편,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발굴에 참여한 발굴자는 1호분 내부 매장시설의 축조순서와 출토된 靑磁盤口壺, 小壺裝飾壺 등으로 볼 때, 봉덕리 금동신발의 제작시기는 빠르면 5세기 2/4분기, 늦어도 5세기 3/4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³¹⁾ 그런데 문양이나 제작기법의 쇠퇴를 보이는 익산 입점리 86-1호분 출토 금동신발이 대체로 웅진 천도 이후인 5세기 4/4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³²⁾ 식리총 금동신발은 47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30) 이문형·유수화,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 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25, 2015, 317~319쪽.

31) 이문형, 앞의 논문, 2010, 81쪽.

32) 이문형, 앞의 논문, 2010, 81~82쪽.

높아 보인다.³³⁾

그런데, 식리총의 편년은 신라 적석목관분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5세기 말~6세기 초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³⁴⁾ 식리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토 유물을 고려하면 5세기 4/4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⁵⁾ 이처럼 금동신발 제작시기와 적석목관분 축조시기 사이의 약간의 시차는 傳世를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圖 3〉 풍납토성 출토 초두



〈圖 4〉 식리총 출토 초두

또한, 식리총에서는 盥形의 胴體에 S자로 휘 龍首形 손잡이와 馬蹄形 三足이 달린 風納土城 鏹斗(圖 3)와 동형의 초두(圖 4)가 확인되었다.³⁶⁾ 이 초두의 제작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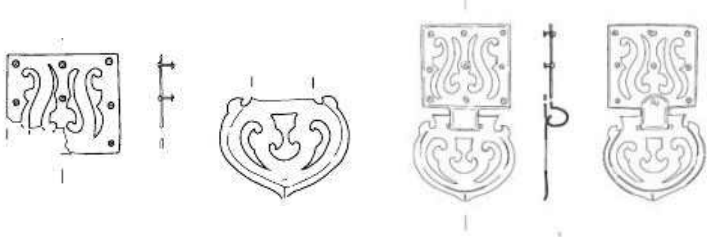
33) 식리총 금동신발은 투조관을 결구시킨 봉덕리 금동신발과 달리 밀랍주조한 관형임에도 불구하고 문양들을 두드러지게 조각하여 한성기 금동신발의 전형적 판금기법인 투조를 연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웅진시기 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점리 금동신발이 평판인 점을 고려한다면, 식리총 금동신발은 한성시기(BCE 18~CE 475)에서 웅진시기(475~538)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4) 박천수,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新羅文化》 47, 2016. 2, 1~16쪽.

35) 馬日順一, <慶州飾履塚古新羅墓の研究-非新羅系遺物の系譜と年代> 《古代探叢-瀧口宏先生古稀祈念考古學論集》, 1980; 李漢祥, <5~6世紀 百濟·新羅·加耶墳墓의 交叉編年 研究> 《國史館論叢》 101, 2003, 30쪽.

식리총 금동신발이 백제에서 사여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초두 역시 백제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경주 금관총과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나온 은제허리띠꾸미개(銀製鍔板)이다. 금관총에서는 鍔板部와 垂下部의 문양, 제작기법에 따라 총 4종류의 은제과관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중심에 三暉文이 있고 좌우에 종방향으로 葉文이 배치된 단조제 과판과 S자형 엽문이 대칭을 이루는 수하부로 구성되어 있는 은제과판(圖 5)이 있는데, 이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 금관총에서도 금제로 된 것이 발견되었고,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도 확인되었다(圖 6).³⁷⁾



〈圖 5〉 금관총 출토 은제과판

〈圖 6〉 송산리 4호분 은제과판

금관총의 조성시기 역시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有蓋式高杯의 상대편년을 고려하면,³⁸⁾ 식리총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5세기 3/4분기 말엽, 즉 470년대일 것으로 여겨진다.³⁹⁾ 그런데, 금관총에서는 동일한

36) 姜秉權, <統一新羅時代 鏤斗 一考察> 《金江考古》 2, 2005, 79~81쪽.

37) 金載烈, <金冠塚 貴金屬製 裝身具 考察> 《慶州 金冠塚(遺物篇)》, 國立慶州博物館, 2016, 223~224쪽.

38) 崔秉鉉, <嶺南地方 考古學資料의 編年-4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1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2000; 최병현, <신라 적석목판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금관총과 아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2014, 12~13쪽.

금속공예품 여러 벌이 확인되었다. 특히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은제과관은 착장형 위세품의 특성상 전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생전에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다만, 금관총에서 송산리 4호분과 동일한 형태의 금제과관이 금관총에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은제과관은 피장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5세기 3/4분기 초·중엽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송산리 4호분은 무덤의 구조를 고려할 때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다.⁴¹⁾ 금관총 은제과관 제작 시점과 송산리 4호분에 매납된 시점의 시차로 볼 때, 아마도 5세기 3/4분기 무렵 신라로부터 사여 받은 은제과관이 전세되다가 매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경주에서 제작된 은제과관이 공주 송산리 4호분에 매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은제과관의 제작시기를 고려하면 455년 신라군의 백제 원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금관총의 피장자는 당시 백제를 돕기 위해 출병했던 인물이며, 송산리 4호분의 피장자는 백제-신라 공동작전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백제에서 제작한 식리총 금동신발은 제작시기 등을 고려할 때, 481년 경주 인근까지 고구려군이 침공하자 신라와 백제가 공동으로 대응한 이후 돈독해진 양국 관계 속에서 백제에서 신라에 사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왕릉급 무덤에 상대국가의 미술품이 매납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적극 동맹기’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9) 박광열,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금관총과 아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2014, 73~90쪽.

40) 金載烈, 앞의 논문, 2016, 228쪽.

41) 李漢祥, 앞의 논문, 2003, 30쪽.

2. 製瓦術과 木造建築技術의 傳播

《日本書紀》에 따르면 588년에 백제에서 瓦博士나 鑪盤博士 등 기술자를 왜에 파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⁴²⁾ 이미 백제에 목조건축과 기와제작 관련 기술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木造建築技術과 製瓦術은 왜뿐만 아니라 신라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앞서 언급했던 황룡사 구층목탑 조성에 참여한 阿非知 관련 기록이며, 실제로도 제와술과 목조건축기술에 있어 백제가 신라에 끼친 영향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백제의 전형적인 圓形突起式瓦當(圖 7)이다. 이 와당은 가운데가 볼록한 연판 끝에 작은 구슬 모양 돌기가 있고, 蓮瓣보다 움푹 들어간 자방 중앙에 1과의 蓮子 주위를 6~8개의 연자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와당은 백제의 公山城, 공주 大通寺址 등 웅진시기 건물지는 물론이고, 軍守里廢寺址, 능사지 등 사비시기 건물지에서도 확인된다. 웅진시기 이후 제작된 백제와당과 동일한 문양의 와당이 경주 月城核子에서 10점이 확인되었는데, 제작기법은 고석인 圓筒接合後分割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제와술 전파 초기에는 瓦范이나 시제품 정도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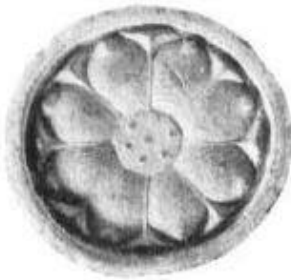
월성해자 출토 백제식와당(圖 8)과 同范의 것이 경주 손곡동·물천리 生産遺蹟에서도 확인되었는데,⁴⁴⁾ 이 유적에서는 경주 월성해자 출

42) 《日本書紀》卷21, 橘豊日天皇 用明天皇, 泊瀬部天皇 崇峻天皇 元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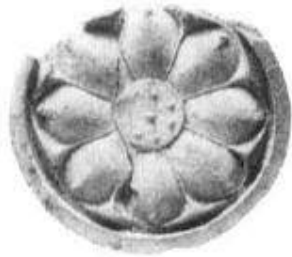
43) 李炳鎬,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傳 鴻隼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9, 2013. 3, 31쪽.

44)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博》, 2000; 趙源昌, <百濟 瓦博士의 對新羅·倭 派遣과 製瓦術의 傳播> 《韓國上古史學報》 48, 2005, 88~92쪽; 김유식, <百濟 瓦博文化的 對外交渉-백제계 신라와당의 수용과 전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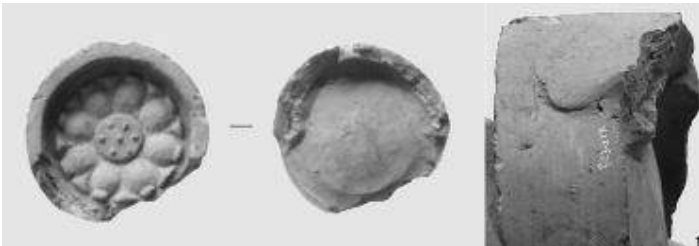
토 수막새와 함께 암키와 제작 틀인 모골의 목관흔적이 있는 백제계 암키와까지 확인되었다.⁴⁵⁾ 이로써도 기술자의 전파는 단언할 수 없으나 와범이 전래되었다는 것은 재확인할 수 있다.



〈圖 7〉 공주 대통사지 와당



〈圖 8〉 경주 월성해자 와당



〈圖 9〉 傳興문사지 출토 와당

한편, 백제 제와술의 신라 전파와 관련하여 轉機가 있었다는 것은 신라 최초의 사찰인 興輪寺로 알려진 경주공고 출토 와당(圖 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⁶⁾ 이곳에서 확인된 일부 와당은 앞서 살펴본 공

국기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 2010. 10, 125~154쪽.

45)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도록, 2000.

4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收拾調査》, 國立慶州博物館, 2011.

주 대통사지 출토 원형돌기석와당과 문양은 물론 수키와 가공접합법과 뒷면의 회전물손질 흔적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⁴⁷⁾ 문양과 제작기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홍륜사 조성과 관련하여 백제에서 와공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홍륜사는 法興王 14년(527년) 창건되기 시작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같은 왕 21년(534년) 공사가 재개되어 眞興王 5년(544년)에 완공된 사찰이다.⁴⁸⁾

한편, 《三國遺事》에 법흥왕이 527년 梁武帝를 위해 대통사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백제의 대통사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 대통사가 527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면, 홍륜사에 제와술이 전해진 시기는 창건하기 시작한 법흥왕 14년 즉 527년이 아니라, 공사가 재개된 534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홍륜사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던 이유는 신라가 제와술뿐만 아니라 사원 조영기술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륜사에 대한 전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백제는 기술적인 지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신라 홍륜사의 주존불로 彌勒佛을 봉안토록 하는 등 불교사상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⁹⁾

그런데, 앞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음에도 548년 단 한차례 신라가 백제를 구원한 것 외에 500년대 들어서서 신라가 백제를 도와주었던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532년에는 백제에게 위협

47) 李炳鎬, 앞의 논문, 2013. 3, 35쪽.

48) 《三國遺事》 興法第3, 原宗興法猷嚮滅身 ; 阿道基羅.

49) 盧重國, <新羅와 百濟의 交涉과 交流-6~7세기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7·18, 2000. 12, 135~138쪽.

이 될 수 있는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까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백제는 521년 신라와 양이 통교하는 것을 주선하는가 하면, 534년 무렵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홍륜사 조영을 돕기까지 한다. 급기야 541년에는 백제가 먼저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고구려에 대항하면서 王都의 遷都를 단행하고자 했던 성왕의 입장에서는 신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⁵⁰⁾

백제의 입장에서는 신라와의 동맹관계가 소원했던 ‘동맹 소강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 역학과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신라에 기술을 전하고 신라왕실의 대역사인 홍륜사 조영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던 때였기에 이 시기 신라 미술품이 백제 왕실 내지 중앙에 직접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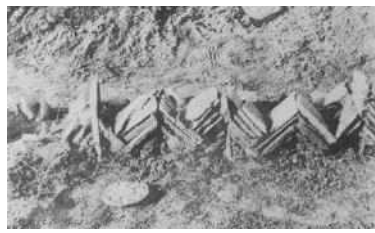
그렇다면, 홍륜사 창건 시 제와술과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사원 조영기술 즉, 목조건축기술은 어떤 양상을 띠었을까? 목조건축물의 상부구조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초석, 적심을 비롯한 기단부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백제에서 신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 형태로는 瓦積基壇과 架構式基壇이 있다.

와적기단은 기와를 사용하여 건물 기단을 조성한 것으로서 사비시기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데, 축조기법에 따라 平積式, 合掌式, 垂直橫列式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¹⁾ 백제의 와적기단은 백제 멸망 이후 일본에 전해져 飛鳥·白鳳時代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⁵²⁾

50) 538년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래한 것이나, 541년 양나라에 열반경 등의 의소와 工匠과 畫師의 파견을 요청한 것도 실리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51) 조원창, <百濟 瓦積基壇에 대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2000. 11, 89~132쪽.

그런데 이러한 와적기단이 신라지역에서도 확인된다. 6세기 3/4분기~4/4분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天官寺址 1건물지 하층 건물지(圖 10)가 바로 그 것인데, 부여 군수리폐사지 금당 남면 기단(圖 11) 및 定林寺址 西回廊 등에서 확인된 소위 ‘삼장식 와적기단’과 유사한 ‘斜積式 와적기단’이지만, 기와와 자연석을 혼용하여 전형적인 백제 와적기단 축조방식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⁵³⁾ 이로 미루어 볼 때, 와적기단이라는 개념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장인이 파견되어 직접 조성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圖 10〉 천관사지 1건물지 와적기단 〈圖 11〉 군수리폐사지 금당 와적기단

한편, 백제 가람배치의 전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584년의 皇龍寺址 重建伽藍이다. 이 중건가람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金堂을 일렬로 배치한 것인데, 6세기 중엽에 조성된 백제의 군수리폐사지에서도 금당지 동쪽 편에 또 다른 건물지가 확인되어 백제에서 이미 1탑 3금당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아울러 황

52) 소재운, <百濟 瓦建物址의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웅진·사비기의 금강유역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45, 2004. 8, 49~70쪽.

53) 趙源昌, <新羅 瓦積基壇의 型式과 編年> 《新羅文化》 28, 2006. 8, 80~82쪽.

54) 趙源昌, <백제 군수리사원의 축조기법과 조영주체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159~190쪽.

룡사 中金堂에 그 이전 신라 목조건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중기단이 시설된 것에서 백제 가구식기단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圖 12). 그런데, 황룡사 중금당의 하층기단은 치석기단이고, 상층기단은 가구기단이면서 차양칸(혹은 퇴칸)을 위한 초석이 갖추어져 있으나, 백제에서는 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567년 조성된 부여 陵寺의 목탑과 금당이 하층 치석기단, 상층 가구식기단의 이중기단이며(圖 13), 차양칸을 위한 초석이 있는 경우는 군수리폐사지 금당지와 정림사지 금당지(圖 14)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⁵⁵⁾ 시차를 달리하는 기법이 조화를 이룬 이유는 황룡사 중건에 계통이 확립된(또는 국가 차원의) 장인집단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백제 사원건축물 조영에 참여한 장인들이 개별적으로 신라의 사원 조영에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552년 신라의 한강 점령, 554년 관산성전투와 성왕의 전사, 562년 신라의 大伽倻 점령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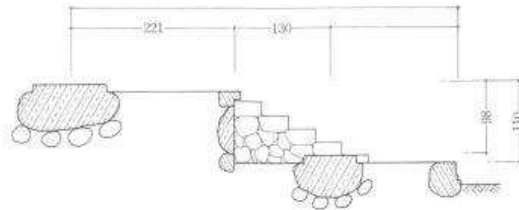
이처럼 백제의 사원 조영기술과 목조건축기술이 황룡사 3금당 조성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미륵사의 3금당을 신라의 영향으로 보는 일부의 주장⁵⁶⁾은 맞지 않다.⁵⁷⁾ 오히려 善花公主 발원과 眞平王의 지원 등은 신라의 삼국 통일 직후 신라 입장에서 윤색되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⁵⁸⁾

55) 趙源昌, <황룡사 중건가람 금당지 기단축조술의 계통> 《文化史學》 32, 2009, 45~62쪽.

56) 盧重國, 앞의 논문, 2000. 12, 154~155쪽.

57) 彌勒下生信仰을 구현하고자 한 미륵사와 釋迦牟尼信仰을 구현하고자 한 황룡사의 신앙·교리적 차이를 고려할 때에도 황룡사의 3금당이 미륵사 가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

58) 김수태, 앞의 논문, 2010, 61~92쪽 ; 진정환, <익산지역 백제 불교미술의



〈圖 12〉 황룡사지 중금당 이중기단 추정복원도



〈圖 13〉 능사지 금당지



〈圖 14〉 정림사지 금당지

한편, 황룡사 구층목탑 조성 시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백제에 장인을 요청하였다는 《三國遺事》 기록은 목탑 조성 당시 양국이 극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제가 공식적으로 장인을 파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백제 출신 장인이 개인 차원에서 신라에 활동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치 시기’인 6세기 중엽~7세기의 미술교류는 비록 단편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기술 전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적·통시적 영향> 《익산, 마한·백제연구의 새로운 중심》, 서경문화사, 2014, 163~167쪽.

3. 佛敎美術 樣式의 影響

흔히 삼국시대 백제 불상의 특징을 “嚴正性과 洗練, 精緻, 事實性, 靜的霧圍氣” 등과 같이 규정하거나, 신라 불상의 특징을 “硬直性, 細部の省略, 雅拙, 矛盾의 共存, 未完成性, 鈍重, 野趣” 등으로 표현하곤 한다.⁵⁹⁾ 표현하는 단어만 다를 뿐 불교조각 연구자들 역시 대체적으로 그렇게 규정한다.

그러나 삼국은 중국 불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각국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아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單線的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⁶⁰⁾ 신라 불교조각에서 백제의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나 동남아시아 불상과 유사한 一群의 불상, 즉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大衣를 착용하고 오른손에 寶珠를 들고 있는 如來像들이 조성된다.⁶¹⁾ 이는 신라가 불상 樣式과 불교 圖像의 수용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의 불상을 통해 백제 불교조각이 신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6세기 중엽에 조성된 부여 군수리폐사지 출토 金銅菩薩立像(圖 15)과 榮州 宿水寺址 출토 금동보살입상(圖 16)이다. 두 상은 모두 6세기 불상이 그러하듯 量感이 없는 신체, 얼굴은 둥근 형태를 보인다. 寶冠을 쓰고 보발이 어깨까지 늘어진 표현은 물론이고, 끝이 뾰족한 목걸이, 사선으로 두 줄을 새겨 넓은 內衣 띠를 표현한 점, 어깨 위 둥근 장식에서 나와 복부에서 X자형으로 교

59) 강우방, 앞의 논문, 1990, 153~154쪽.

60) 임영애, <한국 고대 불교조각의 허물어진 ‘경계’: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강좌미술사》 45, 2015, 335~350쪽.

61) 김춘실, <삼국시대 금동약사여래입상 연구> 《미술자료》 36, 1985. 6, 1~24쪽.

차한 천의, 좌우로 뻗친 옷자락과 施無畏·與願印을 맺은 손모양 등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耳目口鼻가 뚜렷한 군수리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에 비해 숙수사지 금동보살입상의 이목구비는 일부 선각을 해서 뚜렷하지 않다. 숙수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天衣 위에 덧댄 X자형 璽珞裝飾과 원추형 축 역시 군수리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다른 면모이다. 뿐만 아니라, 숙수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선각이 유려한 군수리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비교할 때, 다소 거친 편이다.



〈圖 15〉
군수리폐사지
금동보살입상



〈圖 16〉
숙수사지
금동보살입상



〈圖 17〉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圖 18〉
선산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이처럼 세부 표현 등에서 확연하게 부여 군수리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이 우수한 것으로 보아 백제 불상이 신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일반적으로는 백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불상의 형식과 양식이 중국 山東地域에서 유행하였다는 점, 신라 입장에서 영주일대가 고구려로부터 새로

은 불상양식을 받아들였던 관문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 또는 고구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세기 전반에 조성된 부여 窺巖面과 善山(龜尾)에서 각각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이다. 선산에서는 2구의 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된 바 있는데, 화려한 영락장식이 있는 불상은 중국 隨代의 불상양식을 따르면서도 수대 불상에 비해 정제된 장식을 보인다.⁶²⁾ 반면, 몸체가 길쭉한 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과 도상은 물론이고 비례 등 양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먼저, 부여 규암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圖 17)을 살펴보면,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化佛이 새겨진 삼면으로 된 보관을 쓰고 있다. 몸체가 길쭉하여 다소 머리가 작아 보이는 듯하지만, 얼굴이 통통해서 인지 어색하지는 않다. 영락장식은 어깨에서부터 앞뒤로 늘어져 X자로 교차하였다. 오른손은 보주를 높이 들고 왼손은 내렸다.

이 보살상과 유사한 것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산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직된 규암 출토 상과 달리 얼굴 표정에 여유가 있고 자세 역시 유연하다(圖 18).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영락장식 표현 등은 부여 규암 출토 상보다 한 단계 성숙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상적인 관념대로라면, 선산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신라지역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백제지역에서 만들어졌고 후에 신라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그 어느 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 두 불상의 선후관계를 고려할 때, 보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고 오른손에 보주를 든 관음보살의 도상이 백제지역에서 신라지역으로 확산된 것만은 명확하나, ‘대

62) 김리나, <동아시아 고대 불교 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 조각의 變奏> 《美術資料》 89, 2016. 6, 44쪽.

치 시기'였던 만큼 불상 양식 전파에 국가적 개입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이후에도 舊百濟地域에서는 전통적인 백제 불상양식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燕岐 출토 石造佛碑像들이다. 대체로 670~680년대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세기 초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공양자인 백제유민들이 백제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렇게 계승된 백제 불상의 지방양식은 통일신라 불상 양식 성립에 다양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⁶³⁾

다음으로, 백제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석탑이 신라 석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석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639년에 조성된 익산 彌勒寺址 석탑이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感恩寺址 삼층석탑으로 대표되는 신라 典型石塔은 물론이고 그에 앞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의성 塔里 오층석탑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⁶⁴⁾ 미륵사지 석탑이 신라 전형석탑에 끼친 영향은 二重基壇, 塔身石의 隅柱石, 屋蓋石과 단을 이룬 옥개받침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架構式과 組積式의 혼합 방식, 面石 내·외부를 달리 하는 이원적 치석 방식 등 造塔技術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⁶⁵⁾

63) 김리나, 《百濟의 美術》,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31~134쪽.

64)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동방문화사, 1993, 218쪽; 張忠植, <新羅 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 1984, 154쪽; 천득염, 《백제계석탑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158~161쪽; 朴慶植, <新羅 始原期石塔에 대한 古刹> 《文化史學》 19, 2003, 83~87쪽.

65) 金正基, <典型樣式의 石塔과 彌勒寺址石塔> 《馬韓·百濟文化》 創刊號, 1975, 105~112쪽; 朴慶植, <百濟 石塔의 獨創性과 韓國 石塔에 미친 影響-彌勒寺址 石塔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62, 2015, 38~65쪽.

이어서, 백제와 신라의 舍利莊嚴具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신라의 舍利信仰과 舍利莊嚴儀禮의 시작은 《三國史記》·《三國遺事》 등의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 10년(549년) 중국 양나라를 통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구려와 백제의 사리신앙 전래 기록은 없으나, 불교 수용 및 공인을 고려할 때 신라보다 이른 시기에 전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에서는 王興寺址, 군수리폐사지의 목탑지에서 사리장엄구가 수습되었으며, 2009년에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舍利奉迎記와 함께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초층 옥개석에서 확인된 사리장엄구 역시 석탑의 조성시기와 무관하게 639년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⁶⁾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제 사리기의 형태 변화상을 통해 백제 사리장엄구가 신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보겠다. 우선, 왕흥사지 사리장엄구(圖 19)는 금제병-은제호-동제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의 석함은 없고 舍利孔에 봉안되어 있었다. 한편, 동함에는 ‘577년 2월 昌王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사리장엄구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군수리폐사지 목탑지에서는 蠟石製如來坐像과 앞서 살펴본 금동보살입상이 발견되었는데, 불상을 매납하는 것은 南方佛教의 전통으로

66)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기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발견에 앞서 익산지역과 부여지역의 장식품의 문양과 유사성에 따라 백제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한정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의 編年 再檢討 - 金製佛舍利內盒을 중심으로 -> 《불교미술사학》 3, 2005, 39~50쪽). 필자 역시 639년 제석사 중창과정에서 사리기는 물론이고 금강경판과 그 내·외함까지 제작되었다가 후백제에서 왕궁리 오층석탑을 조성할 당시 제석사에서 옮겨져 석탑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진정환, 앞의 논문, 2014, 187~197쪽).

중국 南朝를 통해 백제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圖 19〉 왕흥사지 목탑
사리내호(577)



〈圖 20〉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639)



〈圖 21〉 왕궁리 석탑
금제사리내함



〈圖 22〉 감은사지 서탑
금동사리외함(682)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圖 20) 역시 心柱石에 마련된 사리공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유리병-금제호-금동제호로 구성되어 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 내부에는 각종 공양품들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심주석 남쪽 기단부에서 土製螺髮 71점과 은제손톱 2점이 확인되었는데, 남방불교에서 확인되는 佛爪髮舍利供養儀禮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⁶⁸⁾ 마지막으로 王宮里 오층석탑 사리장엄구(圖 21)는

67) 周旻美, <韓國 石塔 出現期 舍利莊嚴方式의 變化 樣相> 《百濟研究》 62, 2015, 80~83쪽.

유리병-금제내합-금동제외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제내합의 형태가 앞서 살펴본 왕흥사지 목탑이나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된 평면이 원형인 壺 형태가 아니라, 평면이 방형이며 뚜껑이 방추형이다.⁶⁹⁾

어느 정도의 유례가 있는 백제와 달리, 신라의 사리장엄구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 편이지만 芬皇寺와 황룡사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분황사 석탑 내 녹정형 뚜껑이 있는 방형 석함 안에서는 유리병-은제합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와 함께 각종 공양구가 확인되었으며, 황룡사지 목탑지에서도 다수의 사리장엄구가 확인되었는데 교란이 심하여 봉안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⁷⁰⁾

68) 周旻美, 앞의 논문, 2015, 84~85쪽.

69)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제작국가에 대해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문양 등 사비시기 640년 무렵 장식 문양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백제 것으로 판단된다(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165~170쪽 ; 진정환, 앞의 논문, 2014, 190~192쪽).

다만, IV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후백제시기에 조성된 왕궁리 오층석탑과는 그 시차를 보인다. 이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에 대해 본래 왕궁리 사지 목탑의 사리장엄구라는 견해도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발굴에서 목탑으로 추정되는 정방형 건물지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된 장방형 건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원래 640년 제석사 목탑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석사지는 발굴을 통해 <관세음응험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600년대 초 초창되었다가 640년 무렵 중건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 》, 2011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I 》, 2013). 이렇게 제석사 목탑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는 후백제 건환의 소위 ‘백제왕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습되어 전주로 천도하면서 밝힌 백제 계승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인 왕궁리 오층석탑에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 봉안했던 것으로 보인다(진정환, 앞의 논문, 2014, 192~197쪽).

7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芬皇寺 출토유물》, 2006 ; 周旻美, <皇龍寺 九層木塔의 舍利莊嚴 再考> 《歷史教育論集》 40, 2008, 227~318쪽.

그런데 백제 사리장엄구가 신라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황룡사지 목탑지 사리공에서 출토된 방추형의 금동사리의외함과 682년에 제작된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금동사리의외함이다. 황룡사지 사리장엄구의 경우 조성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682년에 제작된 감은사지 방추형 금동사리의외함(圖 22)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엄밀히 말하자면 제석사지 사리장엄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⁷¹⁾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백제의 불교미술 양식은 當代 신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기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자연스럽게 통일신라 미술양식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後三國期 後百濟 美術의 對新羅 影響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양한 논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어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해보겠다. 첫 번째 특징은 통일신라시대 舊 백제지역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었던 통일신라 양식을 바탕으로 경북 북부지역 불교미술품의 특정 형식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백제적 요소를 재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일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신라시기 잠재되었던 백제 불교미술 양식이 후백제 건국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백제 계승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 특정 형식만 차용하였기 때문이다.⁷²⁾

71) 진정환, 앞의 논문, 2014, 195쪽.

72) 陳政煥, 앞의 논문, 2010, 157~183쪽.



〈圖 23〉
왕궁리 석탑
금동불입상



〈圖 24〉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圖 25〉
왕궁리
오층석탑



〈圖 26〉
경주 남산
오층석탑

그렇다 하더라도, 후백제에서 일방적으로 신라지역의 불교미술 양식을 수용만 했던 것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圖 23)과 경주 皇龍寺址 출토 금동불입상(圖 24)이다.⁷³⁾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은 唐草文과 화염문이 투각된 別鑄의 擧身光背가 부착되어 있고, 通肩式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소위 우드야나식 옷주름 형식을 보인다. 肉髻는 낮고 넓으며, 머리에 청색을 칠하여 佛經의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코 아래에 수염을 새기는가 하면 턱이 짧아지는 등 전성기 금동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신체의 비례 역시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처럼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의 특징인 단구형의 신체와 독특한 단판연화대좌를 갖춘 사례를 비록 늦은 시기의 것이지만 중국 杭州 靈隱寺 經幢 浮彫 五尊佛(969년 무렵) 등 吳越의 불상에서

73) 陳政煥, <後百濟 佛教彫刻의 對外交涉> 《百濟研究》 61, 2015, 147~175 쪽.

찾아볼 수 있어,⁷⁴⁾ 후백제와 교류가 빈번했던 오월의 영향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은 후백제 불상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입상에 비해 광배와 대좌가 소략하지만 두 금동불은 부푼 눈두덩, 길게 찢어진 눈, 짧은 코와 턱, 두드러진 인중 등 안면 표현과 가슴을 드러낸 통견식 착의법, 우드야나식 옷주름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⁷⁵⁾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 오월 금동불→왕궁리 오층석탑 금동불입상→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순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금동불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기념비적 석탑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⁷⁶⁾(圖 25)과 유사성을 보이는 석탑을 경주 西南山 부엉골 해발 270m 늪비봉에서 찾을 수 있다. 늪비봉 오층석탑(圖 26)은 왕궁리 오층석탑처럼 넓은 단층기단에 5층의 탑신, 얇고 평박한 옥개석과 높은 3단의 옥개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늪비봉 석탑 기단 면적이 마멸이 심하여 우주와 탕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장의 돌을 엇갈

74)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4, 1992, 121~124쪽 ;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王宮里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 1997, 5~24쪽.

75) 陳政煥, 앞의 논문, 2010, 173~174쪽.

76)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필자는 왕궁리 오층석탑에 대해 9세기 경북 북부지역에서 유행한 가구식 단층기단의 영향과 백제 석탑을 재현하려고 한 의지가 결합된 석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발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왕궁리 오층석탑 맨 하부에서부터 백제 궁성 중심건물지→정방형의 목탑지→장방형 건물지→석탑 순으로 되어 있으며, 왕궁리 유적에서 후백제와 교류가 있었던 後唐의 연호인 <天成>으로 추정되는 <天戊 大作國>명 기와가 확인된 바 있어, 왕궁리 오층석탑이 후백제 때 조성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전용호, <익산 왕궁리유적의 사찰 운영에 대한 재검토－왕궁탑 하부 유구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60, 2015, 51~84쪽).

려 짜 맞춘 가구식기단이라는 점에서 두 탑의 기단 구성방식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탑신부의 폭이 기단부에 비해 급격하게 축약되었지만 1층 탑신과 2층 이상 탑신의 체감비는 왕궁리 오층석탑의 그것과 유사하다.

늪비봉 석탑에 대해 옥개석의 우동마루(귀마루) 조식이 있다는 점을 들어 목탑을 석재로 재현하고자 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8세기~9세기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⁷⁷⁾ 다른 한편으로, 신라 인들은 신라의 모든 국토를 불국토로 여겼기 때문에, 하층기단은 이미 불국토인 신라 땅이 되므로, 단층기단만을 두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⁷⁸⁾ 여기에 더해 늪비봉 오층석탑은 자연 암반을 기단 삼아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서 9세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⁷⁹⁾

그러나 늪비봉 석탑(도괴된 것을 최근에 복원)은 통일신라시대 8~9세기 단층기단 석탑의 기단과 탑신 체감비와 확연하게 다르며 옥개석과 옥개받침의 형태는 물론 우동마루가 표현된 것도 달라, 다른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탑이 조성된 위치인데, 늪비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끝에 바로 鮑石亭이 있다. 《三國史記》列傳 甄萱條에는 927년 10월 후백제 왕 견훤이 경주를 침공 시 포석정을 먼저 습격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경애왕을 죽이고 敬順王을 옹립한 견훤에게 포석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늪비봉에 백제 재건의 상징물인 왕궁리 오층석탑과 같은 형태의 석탑을 조성함으로써 후백제 곧 견훤 자신이 신라를 점령하였음을 대

77) 朴洪國, <경주지역의 옥개석 귀마루(隅棟) 彫飾 석탑연구> 《경주사학》 19, 2000, 103~124쪽.

78) 張忠植, 《新羅石塔 研究》, 一志社, 1987, 96~97쪽; 신용철, <신라 단층기단 석탑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7, 2013, 142쪽.

79) 신용철, 앞의 논문, 2013, 143~145쪽.

내외에 드러내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⁸⁰⁾ 만약 이것이 맞다면, 앞서 살펴본 황룡사지 금동불입상 역시 견훤의 경주 침공과 늑비봉 석탑 조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늑비봉 오층석탑을 왕궁리 오층석탑과 近似한 크기와 비례로 조성하기에는 재료 조달의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석탑을 조성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古昌戰鬪 패배로 신라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왕건에 넘겨주게 되자 탑신부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후백제왕 견훤은 자신의 출신 배경에 따라 신라 문화에 대한 동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신라 왕도인 경주 그것도 자신이 승리한 포석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백제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후백제가 경주에 영향력을 끼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견훤의 의도가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와 신라의 고분 출토품, 제와술과 목조건축술 등 기술, 불교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유물을 통해 양국 간 국가 차원의 미술 및 문화교류의 일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백제와 후백제의 왕실이 신라의 왕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다양한 기록을 통해 백제 웅진시기 이후 백제와 신라의

80) 陳政煥, 앞의 논문, 2010, 163~165쪽 ; 진정환, 앞의 논문, 2014, 190~192쪽.

미술교류는 양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遠近에 따라, 첫째 ‘적극 동맹기’, 둘째 ‘동맹 소강기’, 셋째 ‘대치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 번째, ‘적극 동맹기’는 450년~500년으로 고구려의 남하에 백제와 신라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한 시기이다. 이 시기 양국 간 미술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나온 은제과판이다. 식리총 금동신발은 한성시기에서 웅진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송산리 고분의 과판 역시 신라의 전형적인 과판이다. 이 시기의 교류는 비록 적극 동맹기였으나, 이처럼 완제품이 상대 국가에 사여되는 것 이외에 문화교류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동맹 소강기’는 500년 이후부터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554년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 양국은 명목 상 동맹이었으나,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양-백제-신라 3국의 국제 관계 속에서 백제의 제와 술과 같은 기술이 신라에 전해지는 한편 중국 남조 불상양식의 영향을 공유하는 등 동맹이 굳건했던 그 전시기에 비해 오히려 미술교류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치 시기’에는 ‘동맹 소강기’ 그 이전 시기 있었던 국가 차원의 직접적 교류는 점차 쇠퇴됨에 따라, 목조건축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방의 문화 내지 미술이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다른 국가의 문화와 미술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자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후삼국기 후백제는 전반적으로 신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으나,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 남산 늪비봉 석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후백제에서도 후백제 미술을 신라지역에 이식하고자 했다.

통념상 삼국시대 세련된 백제 미술이 신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본고를 통해 국가 차원의 미술교류는 직접적인 영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백제의 미술이 신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백제와 신라의 미술교류는 당시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 문화교류의 주체가 왕실만이 아니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역시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당시 백제와 신라의 문화·미술교류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기술하면서 개인적으로 백제와 신라 양국 간 교류를 다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류가 중앙을 배제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삼국시대 미술교류의 다양한 양상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서

《三國史記》，《三國遺事》，《日本書紀》

2. 저서 및 보고서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동방문화사, 199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芬皇寺 출토유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博》, 國立慶州博物館, 2000.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收拾調査》, 國立慶州博物館, 2011.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 4~8·29호분 재보고서》, 국립공주박물관,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 II》, 2013.

이영훈 외,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國立淸州博物館·浦項産業科學研究院, 2004.

張忠植, 《新羅石塔 研究》, 一志社, 1987.

朝鮮總督府,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本文：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2.

崔秉鉉·柳基正, 《大田九城洞遺蹟》, 韓南大學校博物館·氣象廳, 199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 《百濟의 對外交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 《百濟의 美術》,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3. 논문

姜權權, <統一新羅時代 鏹斗 一考察> 《金江考古》 2, 2005.

강우방, <삼국시대 불교조각론> 《삼국시대 불교조각》, 국립중앙박물관, 1990.

姜鍾薰, <羅濟同盟의 結成 背景과 高句麗의 對外關係> 《大丘史學》 105,

2011.

- 김리나,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變奏> 《美術資料》 89, 2016. 6.
- 김병남, <백제 초기의 대외 팽창과 대신라 전쟁의 이해> 《전북사학》 34, 2009.
-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 金壽泰, <百濟 義慈王代の 政治變動>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 金壽泰, <백제의 천도>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 金壽泰,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백제문화》 42, 2010.
- 김유식, <百濟 瓦塼文化의 對外交渉-백제계 신라와당의 수용과 전개-> 《한국기사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 2010.
- 金載烈, <金冠塚 貴金屬製 裝身具 考察> 《慶州 金冠塚(遺物篇)》, 國立慶州博物館, 2016.
- 金正基, <典型樣式的 石塔과 彌勒寺址石塔> 《馬韓·百濟文化》 創刊號, 1975.
- 김춘실, <삼국시대 금동약사여래입상 연구> 《미술자료》 36, 1985. 6.
- 盧重國, <新羅와 百濟의 交涉과 交流-6~7세기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7·18, 2000. 12.
- 朴慶植, <新羅 始原期 石塔에 대한 古刹> 《文化史學》 19, 2003.
- 朴慶植, <百濟 石塔의 獨創性和 韓國 石塔에 미친 影響-彌勒寺址 石塔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62, 2015.
- 朴光烈, <新羅 積石木槨墓 出土 黃金遺物과 初傳佛教-黃金의 起源과 移入에 대하여-> 《文化史學》 27, 2007.
- 朴光烈,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금관총과 아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2014.
- 박민경, <武王·義慈王代 政局運營의 研究>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 박천수,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新羅文化》 47, 2016. 2.
- 朴洪國, <경주지역의 옥개석 귀마루(隅棟) 彫飾 석탑연구> 《경주사학》 19, 2000.
- 소재운, <百濟 瓦建物址의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웅진·사비기의 금강유역

- 을 中心으로-》《韓國上古史學報》 45, 2004. 8.
- 신용철, <신라 단층기단 석탑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7, 2013.
- 이문형,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8, 2015.
- 이문형·유수화,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 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馬韓·百濟文化》 25, 2015.
- 李炳鎬,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傳 洪륜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 69, 2013. 3.
- 李松蘭, <신라 고분공예품에 보이는 불교적 요소의 계보와 그 의미> 《東岳美術史學》 5, 2004.
- 李漢祥, <5~6世忌 百濟·新羅·加耶墳墓의 交叉編年 研究> 《國史館論叢》 101, 2003.
- 李漢祥,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2010.
- 임영애, <한국 고대 불교조각의 허물어진 '경계':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강좌미술사》 45, 2015.
- 張彰恩,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 戰鬥> 《진단학보》 111, 2011.
- 張忠植, <新羅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 1984.
- 전용호, <익산 왕궁리유적의 사찰 운영에 대한 재검토-왕궁탑 하부 유구를 중심으로-》《歷史學研究》 60, 2015.
-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遺蹟·遺物の 解釋과 關聯하여-》《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94.
-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 鄭載潤,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對한 考察-羅濟同盟에 對한 비판적 검토-》《湖西考古學》 4·5, 2001.
- 조원창, <百濟 瓦積基壇에 對한 一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3, 2000. 11.
- 조원창, <百濟 瓦博士의 對新羅·倭 派遣과 製瓦術의 傳播> 《韓國上古史學報》 48, 2005.
- 조원창, <新羅 瓦積基壇의 型式과 編年> 《新羅文化》 28, 2006. 8.
- 조원창, <백제 군수리사원의 축조기법과 조영주체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 조원창, <황룡사 중건가람 금당지 기단축조술의 계통> 《文化史學》 32, 2009.
- 周旽美, <皇龍寺 九層木塔의 舍利莊嚴 再考> 《歷史教育論集》 40, 2008.
- 周旽美, <韓國 石塔 出現期 舍利莊嚴方式의 變化 樣相> 《百濟研究》 62, 2015.
-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 陳政煥, <익산지역 백제 불교미술의 공시적·통시적 영향> 《익산, 마한·백제연구의 새로운 중심》, 서경문화사, 2014.
- 陳政煥, <後百濟 佛教彫刻의 對外交涉> 《百濟研究》 61, 2015.
- 천득염, 《백제계석탑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 崔秉鉉, <嶺南地方 考古學資料의 編年-4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1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2000.
- 崔秉鉉, <신라 적석목관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심포지엄 “금관총과 아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2014.
-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4, 1992.
- 崔聖銀, <羅末麗初 小形金銅佛立像 研究-王宮里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立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8, 1997.
- 한정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의 編年 再檢討-金製佛舍利內盒을 中心으로-> 《불교미술사학》 3, 2005.
- 홍보식, <신라·가야권역 내의 마한·백제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 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영남고고학회, 2007.
- 馬日順一, <慶州飾履塚古新羅墓の研究-非新羅系遺物の系譜と年代> 《古代探叢-瀧口宏先生古稀祈念考古學論集》, 1980.

ABSTRACT

The National Arts Exchange of Baekje and Silla

Jin, Joung-hwan

This article has been examined aspects of exchange of art and culture between Baekje and Silla through such metal crafts as excavations from ancient tombs of two countries, making techniques of roof-tile and wooden architecture, and some Buddhist artworks.

Through the records about the Three Kingdoms period, Baekje and Silla art exchanges between Baekje and Silla since 'Woongjin period (475~538)' can be divided into 'aggressive alliance period', 'alliance lull period' and 'hostile period'.

Firstly, the 'aggressive alliance period' is the period when Baekje and Silla both actively cooperated against the assault of Goguryeo in from CE 450 to CE 500. The cases of showing the exchange of art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is time are gilt-bronze shoes excavated at Sikri-chong tomb in Gyeongju, the capital of Silla, and silver belt ornament excavated at Songsan-ri No. 4 tomb in Gongju, the capital of Baekje. The gilt-bronze shoes of Sikri-chong tomb show the typical style of transition period from 'Hanseong period' to 'Woongjin Period'. And the belt ornament of Songsan-ri tomb also show the typical style of Silla. In this

period, the two countries was an active ally, but it seems that cultural exchanges were not so active except that the finished product was nationally offered to opposite country.

Secondly, the 'alliance lull period' is from CE 500 until CE 554 when King Seong-wang of Baekje died in the Battle of Gwansan-seong Castle. Both countries were nominally allied at this time, but Silla seemed passive in its alliance with Baekje. Nevertheles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Liang(梁, China) – Baekje – Silla, arts and techniques like the making technique of roof-tile of Baekje were passed on to Silla, while the Buddhist statue's style of South China had also influenced to Silla.

Thirdly, in the 'hostile period', direct interchange at the national level was gradually cut, it shows a tendency to magnetize based on the motif of the opposite nation's culture and art, rather than the one-sided influences of culture or art.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later Baekje (892~936) had an attitude of positively accepting the culture of Unified Silla. But, as can see from the Buddhist statue excavated in Hwangnyong-sa temple site and the stone pagoda built on the Neumbibong peak at Mt. Namsan in Gyeongju, the later Baekje tried to settle their art in Unified Silla for political purposes.

It was usually a common perception that the Baekje's refined art would have had a direct impact on Silla. However, through this article, the exchange of art at the national level did not have much direct influence, nor did the Baekje art influence Silla unilaterally. Rather, the exchange of art between Baekje and Silla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at that time.

Key Words : Baekje, Silla, exchange of art, gilt-bronze shoes, making technique of roof-tile, Buddhist statue

논문 투고일 : 2018. 3. 17. 심사 완료일 : 2018. 4. 2. 게재 확정일 : 2018. 4. 3.